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꽃 만개 ‘장수복지강화’ 협력 방안 모색

150여종 2만2천여주 장미 식재... 이번 주말 절정·6월 중순까지 만날 수 있어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에 장미꽃이 만개, 유럽형 건물들과 어우러지며 동화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군은 5월 정미의 계절을 맞아 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관광객 맛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사계절 장미원 3000여평과 유럽형 장미원 3300여평에 150여종 2만2천여주의 장미를 식재, 대규모 장미정원을 조성했다.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에 장미꽃이 만개, 유럽형 건물들과 어우러지며 동화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공관을 설치하는 등 토양개량 작업을 마쳤다.

또한, 유럽형 장미원 내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퍼즐러 5개, 트렐리스 30개, 벤치 43개를 설치하고, 경관 수목 29주를 추가로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장미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초화류도 함께 식재하여 한층 화사한 경관을 선보인다.

임실 방문의 해인 올해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누구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그 자체로 관광 볼거리인 치즈테마

파크에 넉넉한 주차 공간과 카페, 쉼터, 치즈 판매장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군은 이번 장미 개화기를 계기로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5월 말이 되면서 장미원에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며 "향기로운 장미꽃이 만발하는 치즈테마파크에서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순창군은 지난 28일 쉼랜드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사회 대응과 장수복지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정철원 담양군수 등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모두 직접 참석해 회의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공유하며, 각 지자체의 노하우와 정책 방향을 교류하고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는 지난 2003년 협약 체결을 통해 결성된 지자체 간 협력체로, 구례군(구), 곡성군(곡), 순창군(순), 담양군(담) 네 곳이 참여해 운반제로 회장군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지역 간 연대의 상징으로,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문화 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함께,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4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14회 구곡순담 100세잔치'와 '제2회 장수노인 파크골프·게이트볼 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고령층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유도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상호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힐링 노후유 문화체험 프로그램, 치매 조기예측 검사 도입 등 다양한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는 단순한 지역 간 행정 협의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연대와 정책 실현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군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수복지 정책과 평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추어 한우곱창전골 11개 리파인 매장서 판매

남원시와 사)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하 추어사업단)은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 펍 브랜드 '리파인'(REFINE)과 협업해, 남원추어를 현대적 미식으로 재해석한 '남원추어 한우곱창전골' 메뉴를 지난 2월 공식 런칭하였으며, 현재 전국 11개 리파인 매장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이 메뉴는 추어사업단이 추어식품 대중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추어페이스트'를 활용한 비빔소스가 핵심으로, 추어 특유의 깊은 풍미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비린 맛 없이 깔끔한 맛을 구현해, 기존 추어 요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원추어 한우곱창전골'은 남원산 추어페이스트로 우려낸 진한 육수에 국산 한우곱창에 특제 양념과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져 깊고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하며, 리파인의 전통주와 어우러지는 완성도 높은 페어링 메뉴로서, K-푸드의 미식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역점사업 추진 방향 논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국소장과 각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

고 부서별 업무계획 공유를 통해 하반기 역점사업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서는 △국립기관 유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농생명산업 수도화 △출산·보육·교육·의료 중심의 행복복지 구현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실국소별 세부 추진계획과 하반기 목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일정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가공센터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공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가공 장비 사용료 책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작년 8월 농산물가공센터가 위탁운영에서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 장비 사용료 책정을 주요 안건으로 삼았다.

운영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정취균

소장(위원장)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 유통에 관한 전문가와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보고 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장비 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 후, 위원 간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선정했다.

특히, 최종안은 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방식으로 다른 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농업인의 부담



을 최대한 줄이는 안으로 대다수의 위원들이 찬성에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이날 사용료 책정 외에도, 농업인 대상 가공 창업 교육 및 식품위생 교육 강화, 포장재 공동 구매 지원, 가공센터 공동브랜드(임실스레)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딱 맞는 밥상' 선정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하성)이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대표 정우경)에서 주관한 어르신 맞춤형 먹거리 지원사업 '딱 맞는 밥상'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됐다.

약 7개월간 당뇨병 어르신 10명, 당뇨병 중 어르신 5명 등 총 15명의 어르신에게 당뇨 관리 식단 식재료 지원, 요리 교실 참여,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당뇨 관리법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이 스스로 당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의 어르신 맞춤형 먹거리 지원사업 '딱 맞는 밥상'은 정국의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 노인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용성 있는 식생활 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원, 요리 교실 참여,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당뇨 관리법 교육 등을 실시함

순창군, 민방위 집합·사이버 교육 실시

순창군은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시 대응 능력과 생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 민방위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의 이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집합 교육은 오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1~2년 차 민방위 대원, 기술지원대원, 민방위 대장 등 총 252명이며, 총 4시간 동안 △민방위 제도 이해 △응급 처치 △화생방 대비 △화재 예방과 대처 등 4개 분야의 필수 교육이 실시된다.

아울러, 사이버 교육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603명이다. 교육은 디지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